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황보 경*

1. 머리말
2. 당항성 전투 이전 삼국의 정세
3.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
4. 당항성 전투의 양상과 의의
5. 맺음말

1. 머리말

당항성은 신라 眞興王이 553년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부터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대중국 외교를 추진하고자 했던 거점이었다. 문헌에 전하는 ‘党項城’은 지금의 唐城(사적 제217호) 즉 九奉山에 축성된 복합식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행정적인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일원에 해당된다. 당성에 대한 조사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성벽과

* 세종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북문지, 건물지, 외성지 등이 발굴되었으며,¹⁾ 이를 정리하고 주변 유적까지 살펴본 자료도 간행되었다.²⁾ 그러나 당항성이나 당항성 전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개설적이거나 역사지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정도이다.³⁾

당항성은 6세기 중반부터 신라가 멸망하는 10세기까지 약 400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자 무역항이었는데,⁴⁾ 진흥왕이 정복하기 이전에도 백제나 고구려가 화성지역을 점령하면서 항구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 당항성이 포함된 이 일대는 고구려 점령기때 唐城郡으로 불렸다고 전해지고, 신라가 점령한 이후 景德王 16년(757)에 唐恩郡으로 변경하였으며,⁶⁾ 憲德王 14년(882)에 縣으로 격하되어 883년에는 水城郡에 병합되었다. 그러다가 흥덕왕 4년(829)에 수성군에서 당성진으로 개편되었고, 사찬극정을 보내서 지키게 하였다고 전해진다.⁷⁾

신라는 6세기 이전까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대중국 외교 횡수가 훨씬 적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인 불리함과 국력의 열세로 대부분 고구려와 백제 사신을 따라 사신을 파견했었다.⁸⁾ 그러다가

1) 漢陽大學校博物館, 『唐城-1次發掘調査報告書』, 1998; 『唐城-2次發掘調査報告書』, 2001.

2) 경기문화재단, 『당성』, 2009.

3) 李俊善, 「新羅 黨項城의 歷史地理의 考察」, 『關大論文集』8-1, 관동대학교, 1980.

4)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9, 23쪽.

5) 고구려가 당항성 즉 남양만을 점령한 때가 475년부터라고 본다면, 당성이 이미 축조되어 있거나 이전부터 존재하던 즉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필자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이기봉, 「전통시대 남양도호부의 중심지와 역사적 변화」, 『地理學論叢』45,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2005, 419쪽).

6) 『三國史記』卷35, 雜志4 地理2條 “唐恩郡 本高句麗唐城郡 景德王改名 今復故…”

7)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興德王 4年條 “春二月 以唐恩郡爲唐城鎮 以沙浪極正往守之”.

8) 신라는 527년 백제 사신을 따라 梁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梁書』新羅傳에는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여 6세기 초반 해도 신라는 독자적인 외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

신라는 6세기 이후 국가 성장에 따라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隋·唐을 상대로한 삼국의 대중외교는 경쟁관계로 발전되었다.⁹⁾ 특히 삼국은 대당 조공이 시작된 619년 이후 660년까지 41년간 고구려는 25회, 백제는 22회의 입조사를 보냈으나, 신라는 35회를 파견한 바 있어 신라가 점차 적극적으로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당항성은 신라 입장에서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던 만큼 국운을 걸고 사수해야만 했던 곳이었다. 반면, 백제나 고구려는 매번 신라를 공격하는데 있어 수나 당의 간섭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당항성을 봉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육상에서의 국경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남양만 일대 섬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했던 만큼 당항성 공략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마침내 642년 백제 義慈王은 武王대에 이루지 못한 신라 정벌을 위해 40여 성과 대야성 함락을 일거에 이루게 되며, 동시에 당항성을 고구려와 함께 공격하였다.¹¹⁾ 물론 이 전투는 비록 실패했지만, 백제가 신라를 공략하는 전술을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전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642~643년에 벌어진 전쟁을 연구하는데 있어 이제까지는 대개 대야성 전투를 중심으로 김춘추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다루어져 왔기

었다고 여겨진다(鄭載潤, 「5~6세기 백제의 南朝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百濟文化』4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참조).

9) 신형식, 2009,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이해』, 주류성출판사, 219쪽.

10) 신형식, 1997,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215쪽.

11) 이 글에서는 당항성 전투가 발발한 시기를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642)條의 기사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기사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高句麗本紀의 보장왕 즉위년(642)에 김춘추가 방문했던 일과 『舊唐書』東夷列傳 百濟條에 기록된 貞觀十六年(642)의 기사와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고구려본기 보장왕 2년(643) 9월조에는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백제가 40여 성을 점령한 일과 고구려와 함께 입조의 길을 막으려고 하여 구원을 청한다는 기사로 볼 때 당항성 전투는 642년에 벌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 百濟本紀에는 643년 11월에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어서 위의 기사와 시간적 차이가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항성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당항성 전투가 발발하게 된 배경 즉, 삼국의 정세가 어땠는지와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당항성을 공격하게 된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마련하였다. 그 이유는 당항성 전투가 대야성 전투만큼 전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백제 단독이 아닌 고구려가 참전했다는 점과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을 했으나 감금을 당한 뒤 겨우 풀려나 당과 더욱 긴밀한 외교관계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당항성 전투로 인해 당이 고구려·백제의 동맹을 우려했다는 점이다.

2. 당항성 전투 이전 삼국의 정세

신라는 632년에 제27대 善德(女)王이 즉위하였는데, 이 시기는 삼국간의 전쟁이 거의 매년 일어났던 시기였고 수와 당나라도 고구려를 침략하는 등 동북아시아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던 때이다. 삼국 간의 전쟁은 6세기에 비해 7세기대 절정을 이루었는데, 특히 602년 백제가 신라의 아막성을 공격한 일을 시작으로 백제와 신라, 고구려와 신라, 수·당과 고구려가 死活을 건 전쟁을 벌였다. 특히 선덕왕 이전인 眞平王代에는 관제정비와 대중국 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고, 남산성 축조 등 왕경에 대한 수비를 강화하여 백제나 고구려, 倭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642년은 신라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해였다. 백제 의자왕은 쉴 새 없이 신라를 몰아 붙였으며, 고구려도 연개소문이 집권한 직후부터 신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당항성을

공격한 배경을 알기 위해 그 이전의 정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백제의 정세

의자왕은 무왕 33년(632)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왕으로 즉위한 직후부터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무왕도 재위 42년(600~641) 동안 적지 않은 전투를 일으켰는데, 신라와 13회, 고구려와는 1회를 벌여 주로 신라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왕이 공격한 신라 성은 아막성과 가잠(봉)성, 서곡성, 독산성 등으로 공격루트가 다양했는데, 재위 하반기에는 신라의 下州지역에 집중되었다. 무왕대의 전투양상은 하주와 新州를 번갈아서 공격하여 전선을 확대함으로써 신라측의 방어선을 교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¹²⁾ 또한, 전투의 대부분은 백제가 먼저 시작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전에 치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어가 취약한 곳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627년 무왕은 대규모로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려 했으나, 신라가 당에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전투를 중지한 일도 있었지만,¹³⁾ 신라에 대한 공격은 63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수에 4회, 당에 12회 등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도 견고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왕도인 泗泚에 대한 役事を 진행하였고, 益山에 미륵사(사적 제150호)와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을 건설하였으며, 634년에 왕흥사를 낙성하고,¹⁴⁾ 같은 해에 宮南池(사적

12) 金昌錫,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百濟·新羅의 전쟁과 大耶城」, 『新羅文化』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87~88쪽.

13)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28年條 “秋七月 王命將軍沙乞拔新羅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 出屯於熊津 羅王眞平聞之 遣使告急於唐 王聞之乃止”.

14) 왕흥사에 대한 조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목탑터 심초석 사리공에서 사리용기인 청동함, 은제병, 금제병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제사리함에는 29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丁酉年二月十五日

제135호)도 조성하는 등 재위 내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637년부터 641년까지는 신라와의 전쟁을 그치고 마침내 무왕이 昇遐하게 되는데, 638년 어느 시점부터 무왕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왕의 재위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고,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그에 따른 피로도도 높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재위 41년(640) 정월에 혜성이 나타났다고¹⁵⁾ 한 것으로 보아 641년 3월까지 병세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639년 정월에 사택왕후가 미륵사 서탑에 봉안했다는 ‘금제사리봉영기’의 내용 중에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¹⁶⁾라는 내용으로 보아 무왕의 장수를 비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무왕의 건강 이상과 병세의 악화, 장례 등의 기간 동안 백제 정부는 불가피하게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의자왕이 즉위한 직후부터 백제는 다시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며,¹⁷⁾ 당항성과 대야성 전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의자왕은 즉위초부터 아버지인 무왕이 추진했던 대신라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당과의 외교관계도 유지했다. 의자왕은 재위 2년

百濟昌王 爲亡王子 入刹 本舍利二枚葬時 神化爲三』이라 하여 백제왕 창 [위덕왕]이 577년에 죽은 왕자를 위해 사찰(혹은 찰주)를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百濟王興寺』, 2008).

- 15)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41年條 “春正月 星孛于西北”。
『三國史記』에 기록된 혜성이나 일식, 용의 출현 등은 왕의 운명이나 국운과 결부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별이나 해, 달의 움직임이 왕의 죽음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16) 금제사리봉영기의 내용 중 “...願使世世供養劫劫無 盡用此善根仰資 大王陛下 年壽與山岳齊固 寶曆共天地同久...”(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 2011, 36~37쪽).
- 17) 무왕과 의자왕이 대신라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신라에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성왕이 전사한 이후 屍身을 신라로부터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 의도도 있었다고 추측된다(『日本書紀』卷19 欽命天皇 15年 12月條에는 진흥왕이 성왕의 두개골을 北廳의 계단에 묻고, 나머지 시신만 백제로 보냈다고 전한다).

(642)¹⁸⁾ 2월에 주군을 순무하고, 죄인을 풀어주는 등 국민들을 두루 보살폈으며, 같은 해 7월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미후 등 40여 성을 함락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¹⁹⁾ 이때 백제가 함락한 신라 성들은 대야성과 인접해 있는 성들로 무왕이 장악한 거창·함양·산청과 대야성이 위치한 합천을 제외한 진주·사천·고성·마산·함안·의령을 포함한 경남 서남부지역과 고령·성주·선상을 비롯한 경북 내륙의 일부지역으로 추정된다.²⁰⁾ 이 전투의 의미는 의자왕이 재위 초기에 많은 군사를 동원하였다는 점과 직접 참전했다는 점으로 보아 귀족 세력을 규합하고, 군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왕이 다하지 못한 신라 併呑의 대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는데 있다.

또한 8월에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하였고, 한편으론 윤충으로 하여금 군사 1만을 동원하여 대야성을 함락하게 하였다. 대야성 전투 결과, 백제가 성을 함락하고, 성주인 김품석과 그의 처 즉 김춘추의 딸을 죽였으며, 포로 1천여 명을 잡아 돌아왔다.²¹⁾ 대야성 전투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백제로서는 대야성이 하주의 치소성인 동시에 경주와 근접한 요충지를 확보함으로써 경주로 진공

18) 『日本書紀』에 의하면, 이 해 정월에 의자왕의 모친이 돌아가고, 또한 弟王子인 翹岐 및 그의 同母妹 4명, 內佐平 岐味, 고명한 사람 40여 인이 섬으로 쫓겨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하다. 이는 의자왕이 즉위 후 國母가 돌아가자 곧바로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元年 二月條 “今年 正月 國主母薨 又弟王子兒 翹岐及其母妹女子四人 內佐平岐味 有高名之人 柵餘 被放於嶋”).

19)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年條 “二月 王巡撫州郡 慮因除死罪皆原之 秋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彌猴等 四十餘城”.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條 “秋七月 百濟王義慈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20)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慶州史學』 23, 慶州史學會, 2004, 8쪽.

21)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年條 “八月 遣將軍允忠領兵一萬 攻新羅大耶城 城主品釋與妻子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傳之王都 生獲男女一千餘人 分居國西州縣 留兵守其城…”.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데 있다. 반면 신라 입장에서는 김춘추의 사위에게 맡겼던 성이 백제군에게 함락당하자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었을 것이고, 다시 수복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나. 고구려의 정세

고구려는 嬰陽王代(590~618) 수와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에 대하여 침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구려는 수가 건국하자 정세를 관망하면서,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594년 수가 신라 진평왕의 책봉을 고구려와 동등하게 해줌으로써 외교관계에 변화가 생겼다.²²⁾ 이에 영양왕은 598년 遼西를 공격하였고, 수는 30만명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략하기도 하였다.²³⁾ 그리고 603년에는 신라가 점령하고 있던 北漢山城을 공격하여²⁴⁾ 수와 밀착되어가는 외교관계를 차단하고, 한강 이북지역에 대한 지배를 무력화 시키고자 했다.²⁵⁾ 또한, 재위 18년(607)에는 백제 송산성과 석두성을 공격하였고, 19년(608)에 신라의 북쪽 국경을 습격했으며, 우명산성도 함락하였다. 영양왕은 수와의 3차에 걸친 전쟁을 치른 이후 내적인 안정을 추구하다가 재위 29년(618)에 사망하였다. 그 해에 수나라도 멸망하여 두 나라의 전쟁이 동북아시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2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16年條 “隋帝詔拜王爲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 『隋書』卷81, 列傳46 東夷 新羅條 “傳祚至金眞平 開皇十四年 遣使貢方物 古祖拜眞平爲上開府樂浪郡公 新羅王”.

23)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9年條.

2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5年條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 以拒之”.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4年條 “王遣將軍高勝 功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過漢水 城中鼓 噪相應 勝以彼衆我寡 恐不克而退”.

25) 황보 경,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韓國史學報 A58, 高麗史學會, 2015, 58쪽.

영양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榮留王(재위 618~642)은 즉위 초부터 새로 건국한 당나라에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재위 2년(619)부터 12년(629)까지 9회에 걸쳐 사신을 보낸 사실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당 고조는 고구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교정책을 구사해 나가는데, 우선 622년 수와의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 간 포로 1만여 명을 돌려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²⁶⁾ 그리고 631년에는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京觀을 헐어버리기도 했다.²⁷⁾ 이렇게 당 고조와 태종은 고구려와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이용하여 高·隋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戰後 마무리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당에서는 624년에 道士를 시켜 천존상 및 도법을 가지고 와 老子를 강론하도록 하였고,²⁸⁾ 625년에는 당으로 사람을 보내 불교와 노자의 敎法을 배우고자 하는²⁹⁾ 등 종교를 매개로 한 외교관계가 지속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양국의 외교관계는 돌궐에 대한 견제와 자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서로 사신을 교환하면서 교류를 이어가게 되었다.³⁰⁾ 그러던 중 628년 고구려는 당 태종이 돌궐의 頡利可汗을 사로잡은 것을 치하하면서 봉역도를 보냈다.³¹⁾ 고구려가 봉역도를 당에게 보낸 것은 돌궐이 평정된 이후의 판세변화를 대비하면서 자국의 영토를 당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631년 고구려는 당이 경관을 허문 것에 대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동안 수와의 전쟁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

26)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5年條.

27)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14年條 “唐遣廣州司馬長孫師 臨蹙隋戰士骸骨 祭之 毀當時所立京觀”.

28)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7年條.

29)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8年條.

30) 정원주, 「營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高句麗渤海研究』40, 高句麗渤海學會, 2011, 21쪽.

31)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11年條 “秋九月 遣使入唐 賀太宗擒突厥詰利可汗 兼上封域圖”.

으로 부여성에서 발해만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착공한 것이다.³²⁾

한편, 고구려는 637년까지 백제와 신라에 대하여 먼저 침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629년 신라군이 고구려의 낭비성을 함락했고,³³⁾ 고구려는 신라의北上을 막기 위해 638년에 신라의 칠중성을 공략하였으나 패배하였다.³⁴⁾ 낭비성 전투는 고구려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에 고구려는 당과의 외교관계가 비교적 원만했지만 한편으론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라의 침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곧바로 반격을 하지 못한 채 638년에 이르러서야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칠중성은 임진강 이남지역의 거점성으로 두 나라는 무열왕과 문무왕 때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요충지이다.³⁵⁾ 이렇게 영류왕은 당과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하는 편이었고, 신라 공략은 한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영류왕 23년(640)에는 세자를 당에 보내어 조공함으로써 고구려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았을 것이며,³⁶⁾ 이듬해 陳大德이 방문했을 때에도 후하게 대우했다고 한다.³⁷⁾ 이러한 고구려의 대당 정책은 다소 守勢的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영류왕뿐 아니라 大對盧를 비롯한 당시 고구려 집권세력 상당 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32)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14年條 “春二月 王動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 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

33)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12年條 “秋八月 新羅將軍金庾信 來侵東邊 破娘臂城”.

34)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21年條 “冬十月 侵新羅北邊七重城 新羅將軍闕川逆之 戰於七重城外 我兵敗衄”.

35) 『三國史記』에 의하면, 무열왕 7년(660)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여 군주 필부가 전사하고 성이 함락되었으며, 문무왕 7년(667)에는 신라가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36)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23年條 “春二月 遣世子桓權入唐朝貢 太宗勞慰賜賚之特厚”.

37)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24年條.

있다.³⁸⁾ 반대로 일부 귀족세력은 영류왕의 외교노선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결국, 642년 10월 영류왕과 대신 백여 명은 연개소문을 제거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해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³⁹⁾ 그런데, 당항성을 백제와 함께 공격한 것은 『三國史記』新羅本紀를 참고할 때, 동년 8월에 벌어진 일이므로 영류왕이 시해당하기 전에 고구려는 백제와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류왕의 뒤를 이은 보장왕은 연개소문에 의해 즉위했지만, 실권은 모두 연개소문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642년에 김춘추는 당항성과 대야성을 빼앗긴 뒤 백제를 치고자 보장왕을 만났으나 그 청을 거절당하고 감금되었는데,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출병하자 그를 돌려보낸 일도 있었다.⁴⁰⁾ 이로써 고구려와 신라는 화친의 기회가 멀어지고, 더욱 거센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다. 신라의 정세

신라는 진평왕 재위 전반기부터 진행한 내적 정비가 마무리되어 갔지만, 재위 중반기부터는 고구려, 백제와의 전투가 국경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진평왕 54년 동안 치른 전쟁은 모두 13회인데 고구려와 3회, 백제와 10회로 대부분의 전쟁을 백제와 치렀다고 해도

38) 방용철, 「高句麗 榮留王代の 정치 동향과 對唐 관계」, 『大邱史學』102, 大邱史學會, 2011, 21쪽.

39) 임기환은 연개소문이 아버지인 대조와 더불어 대당 강경세력을 이루었고, 정변은 국내계와 평양계 귀족세력이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립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林起煥,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 『韓國古代史研究』5, 韓國古代史學會, 1992, 41~43쪽 참조).

정원주는 “연개소문은 영류왕이 왕권강화를 위해 귀족세력들을 제거하고 계루부 왕실 주도의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한 반발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영류왕을 살해하였다”고 보았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1, 35쪽).

40)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元年條 “…新羅謀伐百濟 遣金春秋乞師不從”.

과연이 아니다. 그 중에서 왕이 직접 출정하거나 동원된 군사 수를 알 수 있는 전투는 北漢山城 전투가 유일하다. 진평왕대 발발한 전쟁의 시작은 602년 백제가 아막성을 공격해 왔고,⁴¹⁾ 603년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략한 일이었다.⁴²⁾ 그리고 재위 33년부터 54년까지 9회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중 고구려와는 낭비성 전투가 유일하다. 따라서, 진평왕대 전투는 백제와 주로 벌어졌고, 고구려와는 북한산성과 우명산성, 낭비성 전투뿐이었다. 백제와의 전투양상은 주로 신라가 수세적이었는데, 花郎을 대표로 하는 젊은 장수들을 내세워 힘겹게 막아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신라는 당나라에 꾸준히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으로 인한 곤란한 상황을 알리곤 하였다.⁴³⁾

진평왕이 재위 54년 만에 승하하자 그의 맏딸인 선덕왕이 즉위하여 왕위를 이었다. 선덕왕 재위 7년(638)까지는 백제가 2회, 고구려가 1회 침략해 왔는데 모두 선방하면서, 내적으로 백성을 위문하거나 분황사와 영묘사를 낙성하는 등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636년 3월에는 선덕왕이 병에 걸리자 진평왕 35년(613)에 이어 두 번째로 황룡사에서 백고죄를 베푸는 등 큰 법회를 열기도 했는데, 5월에 백제 무왕이 장군 우소 등 갑사 5백 명을 보내 독산성을 습격하려고 한 일이 벌어졌다. 물론 알천이 이끄는 신라군이 엄습하여 잘 막아 내었으나, 무왕은 선덕왕의 와병소식을 듣고 기습작전을 전개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638년 칠중성에 쳐들어 온 고구려군을 격퇴시키는데 대장군 알천이 출전하여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켜

41) 아막성은 전북 남원군 성리에 위치해 있는 성리산성으로 포곡식에 돌레가 약 633m이다. 아막성이 위치한 운봉고원은 전북↔경남 간 육로교통의 중추이면서, 방어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2011, 801쪽; 許重權·丁德氣, 「602년 阿莫城 戰鬥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軍史』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4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4·25年條.

4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7·48年條.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⁴⁴⁾ 그리고 637년에는 우수주를 설치하고,⁴⁵⁾ 639년에 하슬라주를 북소경으로 바꾸어 진주를 시켜 지키도록 하는⁴⁶⁾ 등 고구려와 접하고 있는 임진강 유역과 강원지방인 우수주, 하슬라주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방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630년대 벌어진 삼국 간의 전투는 그 이전에 비해 규모도 크지 않고, 교전 횟수도 적어 소강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왕이 내적으로 대규모 役事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630년대 후반기에엔 병세가 악화되어 전투를 지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구려도 수와의 전쟁 여파와 영류왕의 친당정책으로 전쟁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즉위하고,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신라에 대한 공세가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40여 성이 함락된 일과 당항성, 대야성에서 벌어진 전투가 그것이다. 신라로서는 백제와 접하고 있는 서쪽 국경과 당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항구가 백제와 고구려에게 공격당함으로써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에 선덕왕은 그 해 겨울에 김춘추를 고구려로 파견하여 백제를 공격하기 위한 청병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왔다.⁴⁷⁾

44)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7年條 “冬十月 高句麗侵北邊七重城 百姓驚擾 入山谷 王命大將軍闕川 安集之 十一月 闕川與高句麗兵 戰於七重城外 克之 殺虜甚衆”.

45) 『三國史記』卷35, 雜志4 朔州條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置軍主 景德王改爲朔州 今春川 領縣三”.

46)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8年條 “春二月 以何瑟羅州爲北小京 命沙滄眞珠鎮之”.

47)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條.

3.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

당성이 입지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일대는 서해안의 주요 항구 중에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삼국시대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차례대로 점령했고, 백제나 신라는 주요 항구로 활용했으며, 고구려와 조선시대에도 줄곧 이용되었다. 여기에서는 당항성이 왜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항성은 신라 진흥왕대인 553년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신주를 설치한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는 551년 백제와 함께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공격하여 16개 군을 점령하였지만, 2년 뒤인 553년에 백제가 회복한 한강 유역을 기습하여 점령하였다. 그리고 신라는 지배의 강화를 위하여 557년 신주를 북한산주로 옮기고, 568년 북한산주에서 남천주로 치소의 거점을 옮겼다.

이 시기 신라는 대중국 외교의 출항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화성에 있는 지금의 당성을 거점성으로 삼았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자주적인 대중국 외교를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출항지는 바로 당항성이었다.⁴⁸⁾ 신라가 당항성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백제가 개발해 놓은 항구라는 점과 중국으로 건너가기에 적합한 출항지라는 점이 그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신라 입장에서는 인천이나 강화지역의 경우 개성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임진강의 하류여서 황해도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침공이 우려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인천보다 남쪽이면서 백제의 태안반도보다 북쪽 지역인 남양만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라는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는

48) 皇甫慶, 「新州 位置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53, 白山學會, 1999, 228~229쪽 참조.

고구려나 백제의 사신을 따라 동행했어야 했고, 독자적으로 경주에서부터 바닷길로 중국을 가기에는 너무 멀리 돌아가야만 했다. 따라서, 신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육상교통로를 따라 서해안으로 접근한 뒤, 바닷길을 이용하여야 짧은 시간 안에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경주에서 당항성으로 가기 위한 교통로를 먼저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충주 ↔ 여주 ↔ 이천 ↔ 수원 ↔ 남양만이고, 둘째는 상주 ↔ 보은 ↔ 청주 ↔ 진천 ↔ 직산 ↔ 남양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길이 거리가 훨씬 짧고 지세도 평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⁴⁹⁾ 아래의 기록을 통해서 8세기대에 자주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사료-1〉본국 경계 내에 3주를 두니, 왕성 동북쪽 당은포 방면을 상주라 하고, 왕성 남쪽을 양주, 서쪽을 강주라 하였다.⁵⁰⁾

그러나 7세기대의 기록을 보면 남천주를 거쳐 당항성으로 가는 길도 자주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열왕 7년(660) 6월에는 왕을 비롯한 김유신 등이 이끈 신라군이 南川停에 도착한 후 蘇定方이 이끄는 당나라군을 맞이하기 위해 태자 법민과 병선 1백척을 德物島로 보낸 일이 있었다.⁵¹⁾ 문무왕 3년(663)에는 당에서 백제 부흥군을 토벌하기 위해 孫仁師에게 군사 7천명을 덕물도를 거쳐

49)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128쪽.

50) 『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條 “本國界內置三州 王城東北當恩浦路曰尙州 王城南曰良州 西曰康州”.

51)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年條.

660년 당이 백제를 침략할 때 당 고종은 김인문에게 백제의 도로 사정과 당에서 백제까지 오고 가는 편의를 묻자 일일이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이로 보아 신라는 서해안의 주요 항구와 성곽, 도로 등 육상 및 해상의 교통로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三國史記』卷44, 列傳4 金仁問傳).

웅진부성으로 나가게 한 일도 있었다.⁵²⁾ 또한, 문무왕 8년(668) 6월 12일에 劉仁軌가 당항진에 도착하자 왕이 김인문을 보내어 환영한 일이 있었다.⁵³⁾ 이 두 예로 보아 신라군은 경주에서 남천주를 거쳐 남양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당항진을 대당 외교의 거점 항구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항성은 진흥왕 이래로 줄곧 신라의 대중국 외교 출항지이자 입항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덕적도에 당 수군이 주둔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신라 수군이 덕적도에 대규모 기지는 물론 碇泊施設을 해 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항성의 서해 외곽 전초기지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⁵⁴⁾

다음으로 당항성을 통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航路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당성이 위치한 남양만에서는 서해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연안항로가 있고, 山東半島로 직접 향해하는 항로와 당항성에서 백령도까지 북상하였다가 산동반도로 향하는 항로 등 여러 바닷길이 있었다. 그 중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직단항로는 덕적도를 지나 산동반도의 登州나 靑島로 들어가는 항로이다.⁵⁵⁾ 이때 당항성이 주요한 출발지가 되었는데,

52)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3年(663) 5月條에 유인케는 유인원과 함께 해 무장을 풀고 군사를 쉬게 하면서 군사의 증원을 요청하여 황제가 손인사를 보내 군사 40만 명을 거느리고 덕물도에 이르러서 웅진부성으로 나가게 하였다고 전한다.

『舊唐書』東夷列傳 百濟 龍朔 2年條(662)에는 유인원이 증병을 요청하여 군사 7천 명을 징발하여 손인사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웅진으로 가서 도와 주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53)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8年條.

54) 德積島는 德勿島, 得物島라고도 불리며, ‘큰물섬’이라는 우리말을 한자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덕적도 國壽峰은 소정방이 이 섬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제천단을 쌓고 이곳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덕적도 동남쪽 약 500m 거리의 蘇爺島 이름도 소정방의 주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소야리 大村에서 古瓦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수습된 바 있어 관련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金光鉉, 『德積島史』, 德積島史編纂委員會, 198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덕적군도종합학술조사』, 2002).

55) 날씨가 좋을 때에는 경기만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영흥도 서쪽 항로 즉 섬

지금의 마산포나 화랑포를 사용했을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다.⁵⁶⁾

한편, 당시의 신라 선박은 어떠 했을까? 이제까지 신라 선박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안압지선’이 유일한데, 최근 영흥도 서쪽 3km 정도 떨어진 섬업벌에서 발굴된 ‘靈興島船’이 주목된다. 영흥도선은 3단으로 결구된 상태로 발굴되었는데, 잔존규모는 길이 6m, 폭 1.4m, 선심 0.3m 가량이고, 선체는 서쪽으로 30° 가량 기울어졌으며, 중앙을 기준으로 한 장축은 거의 남-북에 가깝다. 배에서 출수된 유물은 철제술 12점 등 금속류 17점, 도기병 2점 등 도기류 6점, 사슴뿔 등 골각류 3점, 닻돌 등이고, 선체편인 외판과 저판의 수종이 소나무류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신라 선박은 9세기 일본에서도 ‘新羅船’을 건조하여 그들의 국가 공무인 遣唐使船, 貢物運搬船에 투입시켰다. 그러한 이유는 ‘신라선’이 구조와 성능에 있어서 중국형 선박보다 더 우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⁵⁷⁾ 이러한 점을 참고로 영흥도선의 제작시기는 8~9세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안압지에서 출토된 ‘안압지선’과 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⁵⁸⁾ 비록 발굴된 배가 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지만, 660년 신라군이 덕적도에 병선 1백 척을 투입

업벌 주변 항로를 이용하였고, 대부도와 선재도, 영흥도 등 섬사이를 지나는 항로는 경기만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항로로 사용되었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인천 용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4, 400쪽). 그리고 권덕영에 의하면, 일본 건당사의 경우를 신라 건당사에 적용시켜 당은 포-등주간 약 600km는 1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등주에서 장안까지 약 60일 정도가 걸리므로 경주에서 장안까지는 총 3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보았다(權惠永, 『『三國史記』新羅本紀 遣唐使 記事의 몇가지 問題』,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82~83쪽).

56)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9, 22쪽.

화랑은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경기 수군 중에서 가장 큰 부대로 함선 26척과 1,666명의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정호의 청구도에는 고려 공민왕 때 화랑이 왜구의 침공을 받았다는 기록과 왜구가 들어온 지점이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9, 41쪽).

57) 최근식, 『신라해양사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117쪽.

58)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4.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의 선박 제조기술은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겠다.

7세기 당시에 당항진을 개발하고 연안 해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성, 안산, 인천, 강화 일대를 아우르는 경기 해안지대를 차지해야 했다. 그러나 고구려 수군은 서해 연안항로 일대를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중국으로 往來하기에는 쉽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사료-2〉 춘추는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다 위에서 고구려의 순라병을 만났는데, 춘추의 종자 온군해가 존귀한 관모와 의복 옷차림으로 배 위에 앉아 있었더니, 고구려 순라병들은 그를 춘추로 여기고 잡아죽였다. 춘추는 작은 배를 타고 본국에 이르니, 왕이 이 일을 듣고 애통해 하였으며, 온군해에게 대아찬의 관위를 추증하고 그 자손들에게 넉넉히 포상하였다.⁵⁹⁾

위의 기록으로 보아서도 648년 고구려 수군은 신라의 주요 항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따라서, 신라로서는 고구려의 항로장악을 풀기 위해서 한강 유역을 완전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신주를 중심으로 북한산성 방어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북한산성을 603년과 661년에

59)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眞德王 2年條 “(春秋還至海上) 遇高句麗邏兵 春秋從者溫君解 高冠大衣 坐於船上 邏兵見以爲春秋 捉殺之 春秋乘小船 至國 王聞之 嗟痛 追贈君解爲大阿漚 優賞其子孫”.

60) 이 사건은 고구려가 신라의 대당 항로 즉 그의 歸唐之路를 차단하여 나·당간의 연결을 저지하는 동시에 당의 신라 원조에 대한 외교문서를 略取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申滢植, 『韓國古代의 서해 교섭사』, 『국사관논총』 2, 1989, 258쪽). 백제도 문주왕 2년(476)과 동성왕 6년(484), 무왕 27년(626) 중국으로 보낸 사신이 고구려 수군에 의해 저지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백제의 사신선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황해도 남쪽 연해를 따라 서쪽으로 항해하여 백령도나 대청도에 이르렀다가, 여기서 바람을 기다린 후 큰 바다를 건너 산둥반도로 항해야 하는데, 고구려가 황해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혹 방해를 받았던 것이다(정진술, 『한국해양사』, 京仁文化社, 2009, 165쪽).

공격하였는데, 특히 661년에는 말갈병과 함께 수륙군을 동원하기도 했다.⁶¹⁾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고구려와 신라는 6세기 중반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7세기 중반까지 한강 유역과 서해안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이 때문에 신라로서는 고구려 수군의 감시로 인해 백령도나 강화도 일대의 항로 이용이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산동반도로 직행하는 항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특히 6세기 말 이후에는 신라가 백제에 의해서 개척된 서해 직통항로를 빼앗아 어느 정도 이 항로를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83년에 船府署를 설치한 점은 신라의 적극적인 해상진출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⁶²⁾

이와 같이 당항성이 신라 주요 항구였다면, 주변 지역에도 많은 수의 성곽이 분포해 있어야 한다. 당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지만, 화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과 인천과 강화 일대까지도 확보하여야만 海路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당항성 주변 특히 평택 일대에 분포한 비봉산성과 자미산성, 무성산성 등을 중심으로 교통로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당성과 그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면, 성이 축조된 구봉산은 북동-남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발 150m 정도의 산이고, 남서쪽으로 烽火山과 이어져 있어서 두 산의 길이가 총 4.2km 정도이다. 따라서 두 산은 사선방향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서쪽이나 남서쪽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구봉산의 남동쪽 약 1.25km 거리에 백곡리토성이 있고, 약 2.5km 거리에 淸明山이 마주해 있으며, 그 사이에도 낮은 산이 있어서 실제로는 구봉산과 청명산 사이가 막혀 있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동쪽 화성시내로부터 접근하여 산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지형

61) 『三國史記』卷42, 列傳2 金庾信中條 “高句麗靺鞨謂 新羅銳兵皆在百濟 內虛可擣發兵水陸並進 圍北漢山城 高句麗營其西 靺鞨屯其東 攻擊浹旬 城中危懼…”.

62) 申滯植, 앞의 논문, 1989, 259쪽.

이다. 현재는 지방도 305호선이 터널을 통해 지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굴고개’라고 하는 산길을 넘어 다녀야 했을 정도로 남서쪽 바닷가를 제외한 나머지 방면은 자연적인 방어능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간척지로 현상이 변경되기 전에는 밀물과 썰물로 인해 구봉산 일대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섬으로 변하기도 했다. 즉 당성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동쪽은 육지와 갯 강으로 분리되어 있어 육지와 가깝고 썰물 때면 육지와 소통도 원활하다. 특히 당성은 섬의 방어력과 최고의 해자, 산성의 접근성을 모두 지닌 천혜의 요새였다고⁶³⁾ 할 수 있다.



〈지도 1〉 당성 주변 유적 분포도(경기문화재단, 『당성』, 2009 인용)

63)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9, 39쪽.

당성은 축조시기가 다른 3중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쌓은 성벽은 구봉산의 정상부에서 봉화산으로 뻗은 테피식 성이다. 둘레는 363m, 외벽 높이는 4~5m이고, 성벽 위에는 2~3.5m의 회곽도가 조성되어 있다. 포곡식 성벽은 테피식 성벽의 중간부를 관통하며 구봉산 능선을 감싸 안은 산성이다. 이 성벽은 통일신라 말기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며, 당성진 설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벽 둘레는 1,148m이며, 판축기법을 이용한 토축성벽으로서 일부 구간은 석심을 채워 쌓은 수법을 보이고 있다. 외벽 높이는 3~4.5m이고, 남문지와 북문지가 있고, 동문지와 수구지는 계곡 쪽에 있다. 이외에도 산능선을 따라 작은 외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서남쪽 외성에서는 남양장성이라 불리는 토루가 연결되고 있다.⁶⁴⁾



〈지도 2〉 당성 현황도

〈사진〉 당성의 성벽

이외에도 당성 주변에는 삼국시대 유적이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백곡리토성과 백곡리 고분군, 백곡리사지, 상안리 유적 등이 있다. 백곡리토성은 마도면 백곡리 산135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산 정상부를 둘러싼 테피식 토축산성으로 평면이 타원형에 가깝고

64) 경기문화재단, 위의 책, 2009, 12~14쪽.

둘레가 320m이다.⁶⁵⁾ 백곡리 고분군은 1~3지점까지 지표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⁶⁶⁾ 그 중에서 확인된 12기 중에 6기 정도가 발굴되기도 했다. 고분군은 1.2km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 4~5세기대 백제 석곽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된 고분에서는 원저단경호와 승문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을 비롯한 철제무기, 마구류, 농공구,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1호 석곽묘에서는 철제대도와 단갑, 재갈 등이 출토되어 피장자가 武將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곡리사지는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건물지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 높고, ‘白寺’가 시문된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절터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선조문과 집사선문, 수지문 등이 시문된 기와류와 백제~통일신라기 토기도 많이 산포되어 있다.⁶⁷⁾ 그리고 주변 구릉지대에서 백곡리유적과 백곡리 유물산포지 등이 분포해 있다.⁶⁸⁾ 또한 백곡리사지로부터 서남쪽 약 350m 거리에 상안리유적이 위치해 있는데, 이 유적에서는 I 구역에서 도로유구와 수혈유구 5기, II 구역에서 온돌과 배수시설이 갖춰진 건물지가 발굴되었다. 이 유구들은 대체로 6~9세기대에 편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당성과 관련 있는 임시주거지나 교통로, 숙박이 가능한 건물지로 추정되고, 시기는 7~9세기로 보고되었다.⁶⁹⁾ 따라서, 당성의 동쪽과 남쪽 주변에 성곽과 고분군, 절터,

65) 이 성은 서·북·남벽이 협축식, 동벽 일부 구간이 편축식으로 축조되었고, 외벽 높이는 3~6m, 상면폭은 0.8~1.8m이다. 성의 문지는 동·서문지가 있는데, 상단폭이 5~8m이고, 서문지 남측벽이 웅성형태로 돌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수습된 기와류는 선문과 어골문 등으로 주로 통일신라~고려시대 기와편이 수습되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6, 280~281쪽).

66) 金元龍, 「華城郡 麻道面 白谷里 百濟古墳과 土器類」, 『百濟研究』2,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三國時代遺蹟의 調査研究(II) 華城白谷里古墳』, 199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위의 책, 2006, 277~279쪽.

6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앞의 책, 2006, 281~283쪽.

6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앞의 책, 2006 참조.

6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7, 『華城 尙安里遺蹟II』.

주거지 등 많은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당성 일대에는 삼국시대부터 줄곧 남양만에서 중요한 항구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4. 당항성 전투의 양상과 의의

여기에서는 642년 당항성에서 벌어진 전투의 원인과 전개양상 그리고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당항성 전투는 아래 사료를 통해 정리해 보면, 백제가 먼저 신라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당항성도 고구려와 함께 공격한 내용이다.

- <사료-3> 선덕왕 11년(642) 가을 7월에 백제 왕 의자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나라 서쪽의 40여 성을 쳐서 빼앗았다.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해 당항성을 빼앗아 당으로 가는 길을 끊으려 하니, 왕이 당 태종에게 사신을 보내 위급한 사정을 알렸다. 이 달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쳐서 함락시켰는데, 도둑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 용석 등이 이 싸움에서 죽었다.⁷⁰⁾
- <사료-4> 보장왕 2년(643) 9월에 신라가 사신을 당에 보내어 말하되 “백제가 우리의 40여 성을 공취하고, 또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입조하는 길을 막으려 한다”하고 구원을 청하였다.⁷¹⁾
- <사료-5> 정관 16년(642)에 의자가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고 군대를 보내어 지키는 한편, 고려와 화친을 맺어 통호하고, 당항성을 탈취하여 신라의 입조길을 끊고자 하였다.⁷²⁾

70)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條 “秋七月 百濟王義慈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八月 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太宗 是月 百濟將軍允忠 領兵 攻拔大耶城 都督伊浚品釋·舍知竹竹·龍石等死之”.

71)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2年條 “秋九月 新羅遣使唐言 百濟攻取我四十餘城 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乞兵救援”.

72) 『舊唐書』東夷列傳 百濟條 “貞觀十六年 義慈興兵伐新羅四十餘城 又發兵以守

위의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당시의 戰況은 백제와 고구려가 당항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대중국 외교의 거점항을 점령하려는 것이었다.⁷³⁾ 그렇다면, 두 나라는 왜 당항성을 공격하게 된 것일까?

642년 이전의 정세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와 고구려가 내적으로 왕위 교체가 일어나 권력 안정화를 위한 정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사상 최초 여왕의 卽位와 臥病으로 인한 내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먼저 신라를 압박한 것은 의자왕이었다. 의자왕은 즉위초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는데, <사료-3>에서 보듯이 642년 7월과 8월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신라 40여 성을 빼앗고, 당항성을 공격하였으며, 대야성마저 함락하기에 이른다.

특히 당항성 전투를 벌이게 된 목적은 중국으로 가는 유일한 거점항을 봉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줄곧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기 전후에 신라가 수나 당에 병력을 요청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중국의 경고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627년 무왕이 웅진으로 나아가 大兵을 일으켰을 때도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감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던 일도 감안했을 것이다. 따라서, 의자왕은 무왕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라의 서변을 同時多發的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당으로 가는 출항지를 봉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신라를 완전하게 압박해야만 항복을 받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전투양상은 백제 의자왕이 먼저 고구려에 화친을 청하고, 당항성을 공격하기로 동맹을 맺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백제는 왜 고구려와 손을 잡은 것일까? 그 이유는 백제군은

之 與高麗和親通好 謀欲取黨項城以絕新羅入朝之路”.

73) 『三國史記』百濟本紀에서는 의자왕 3년(643) 11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黨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請救於唐 王聞之罷兵”).

이미 40여 성을 함락하고 난 뒤여서 추가 병력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백제 단독으로 당항성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의자왕은 고구려와 공동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남·북 양 방면에서 당항성을 함락하여 신라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이다.⁷⁴⁾ 반대로 고구려는 왜 백제와 손을 잡은 것일까? 고구려는 당시 영류왕이 시해되기 2개월 전이었으므로 영류왕이 이 전투를 승인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전투는 638년에 있었던 고구려의 칠중성 전투의 패배에 따른 반격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영류왕은 재위기간 동안 신라에 대하여 先攻을 하지 않았지만, 신라가 629년 낭비성을 함락하여 고구려를 먼저 자극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638년에 신라의 북상을 막기 위한 칠중성 공략에 나서지만, 초반의 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 그 이후 고구려로서는 신라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백제가 동맹을 요청하자 대군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라 여겨 당항성 공격에 참전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⁷⁵⁾

한편, 이 전투는 백제와 고구려가 공동작전을 구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백제와 고구려는 육군보다 수군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고구려는 신라가 553년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에 여러 교통로를 통해 신라의 국경지역 성을 공격하였는데, 642년경에는 육로를 통해 당항성을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629년에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을⁷⁶⁾ 쳐서

74) 문안식, 앞의 글, 2004 16쪽.

75) 그런데 이 전투가 연개소문의 주장에 의하여 전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 같은 이유는 연개소문이 그 해 김춘추가 방문했을 때 신라의 청병을 거절하고 그를 억류했으며, 644년에 相里玄獎이 방문했을 때에도 신라의 두 성을 공격하고 있었다(『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3年條). 따라서, 연개소문은 당뿐 아니라 신라에 대하여도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백제의 당항성 공격 제의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영류왕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다.

76) 낭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으나, 지금의 포천 반월산성으로

함락했다거나 638년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해 오자 알천이 이끄는 신라군이 대승을 거뒀다는 내용으로 보아 두 나라의 北境은 임진강과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고구려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육군이 당항성까지 남하하기 위해서는 퇴로의 확보는 물론 물자보급이 이루어져야 가능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았으며, 만약 육로로 공격했다면 611년과 655년, 661년 전투기사에서 보듯이 말갈군을 동원했을 것이다. 611년에는 고구려와 백제, 말갈이 침범하였고,⁷⁷⁾ 655년 고구려는 백제와 말갈을 동원하여 신라의 북쪽 국경을 침범하여 33개 성을 취하였으며,⁷⁸⁾ 661년에도 보장왕이 장군 뇌음신과 말갈을 동원하여 술천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북한산성으로 방향을 바꿔 공격한 일도 있었다.⁷⁹⁾ 이외에도 고구려는 영양왕 9년(598)에 수의 요서를 말갈병 1만여 명을 동원한 바 있고,⁸⁰⁾ 보장왕 4년(645)에도 당과의 전투에서 말갈병이 적지 않게 동원된 일이 있었다.⁸¹⁾ 따라서, 고구려가 당항성을 육로로 공격했다면 전투는 물론 퇴로확보와 물자보급을 위해 분명 말갈병의 도움이 필요하여 동원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기록이 없고 신라의 임진강~한강 유역 방어체계가 비교적 견고한 상태에서 육군

비정되고 있다(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28, 檀國大史學會, 1995;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77) 『三國史記』卷41, 列傳1 金庾信 上傳

78)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14年條 “春正月 先是 我與百濟靺鞨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金春秋 遣使於唐求援”. 『舊唐書』東夷列傳 百濟條 “永徽六年 新羅王金春秋又表稱百濟與高麗·靺鞨侵其北界 已沒三十餘城”.

79)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8年條 “五月九日 高句麗將軍惱音信與靺鞨將軍生偕 合軍來攻述川城不克 移攻北漢山城…”.

80)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9年條.

81)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年條.

보다는 수군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⁸²⁾

백제도 지금의 평택·안성 남쪽지역인 천안과 아산지역을 경계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⁸³⁾ 육군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신라가 당항성을 확보한 이후에 남천주가 있던 지금의 이천이나 평택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로에 자미산성⁸⁴⁾ 등의 성곽이 운영되고 있었고, 안성천 등의 하천을 넘어 몇 군데 성을 함락하며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당항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신라 40여 성을 빼앗고 군사를 주둔시켰다는 기사로 보아 이미 많은 수의 육군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나라의 군대가 약속한 날짜에 합류하여 공격하기에는 육군보다 수군이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수군은 적은 수의 함선과 병력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요격하고자 하는 목표물만 타격 후 철군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군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백제가 주도하고 고구려가 약조하여 당항성을 기습하였지만,

82) 『三國史記』에 따르면, 661년 고구려와 말갈이 술천성 공격에 실패하자 북한산성으로 옮겨와 공격했을 때, 수륙으로 왔다고 전해진다(『三國史記』卷42 列傳2 金庾信中條). 이로 보아 고구려군이 수로를 통해 배를 타고 이동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83) 김영관은 『三國史記』地理志 ‘白城郡’과 ‘湯井郡’條 및 같은 책 列傳 素那條를 바탕으로 660년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을 안성천의 북쪽과 남쪽 평야지대는 신라가, 백제는 곡교천과 안성천 입구의 하천과 아산의 영인산 등 차령산맥 줄기를 따라 안성과 진천까지 신라와 경계를 이루었다고 보았다(金榮官, 「660년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20, 新羅史學會, 2010, 104~106쪽).

또한, 『三國史記』卷47 列傳 素那傳에도 白城郡 일대에서 신라와 백제군이 仁平中(634~647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고 전한다.

84) 자미산성은 안성천과 진위천, 발안천 사이에 위치한 둘레 582m의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조사결과, 문지 3개소, 치성 3개소, 건물지 8개소, 저장시설, 집수시설 등이 확인되었고, 수막새와 고배, ‘上’, ‘下’, ‘十’ 등의 명문이 새겨진 토기, 명문기와, 평기와 등이 출토되어 6세기 후반~7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평택 서부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신라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당항성은 신라가 처음 점령한 6세기 중반 이후에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육로나 해로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당항성이 7세기 중반까지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흥왕대 이루어 놓은 교통로상의 성곽 분포가 한 몫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진흥왕은 553년 백제로부터 한강 본류역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고, 564년에 北齊에 조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566년에 陳에 사신을 보내는 등 서해를 통한 중국과의 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진흥왕은 568년에 북한산주를 남천주로 옮겨 백제를 견제하는 한편, 당항성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천주에는 설봉산성이 그 치소성이었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용인-수원을 지나 당항성에 이르렀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성 주변의 지세와 섬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라는 점이 신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

麗濟 수군은 당항성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덕적도도 포괄적인 공격범위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덕적도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대형 선박으로 갈아타던 곳이었고, 신라 수군의 함대도 이곳에 정박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제 수군은 덕적도를 공격하여 신라 선박이 당으로 향해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자 했을 것인데,⁸⁵⁾ 신라 수군은 덕적도와 영흥도, 대부도, 제부도 등 많은 섬과 빠른 해류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이도 활용하여 당항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태세를 갖추었을 것이며,

85) 백제와 고구려군이 당항성을 공격한 시기가 8월인데, 덕적도 주변 수심은 약 30m 내외로 낮은 편이고, 가을철에 덕적도 주변 풍속은 여름철 약 12%보다 약간 빠르고, 풍향은 북서풍이 우세하며, 풍향이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편이다(고희종 외, 「한반도 주변 해역 5개 정점에서 파랑과 바람의 관계」, 『韓國地球科學會誌』 26-3, 한국지구과학회, 2005, 244쪽).

화성과 수원 등의 주변 성에 지원도 요청했을 것이다. 이는 여제 수군이 당항성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신라군은 당항성이 봉화산과 구봉산이 총 4.2km의 긴 능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성 주위가 밀물 때 바다로 채워져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십분 활용했을 것이다. 결국 백제와 고구려군은 당항성 주변의 많은 섬들과 조수간만의 차이, 육지 상륙 후 신라 육군과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여 당항성을 함락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642년 겨울에 선덕왕은 백제의 猛攻을 받고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어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⁸⁶⁾ 보장왕은 김춘추에게 죽령 이북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그럴만한 권한이 없다고 하자 감금하였고, 신라에선 얼마 뒤에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이 출병하자 보장왕은 김춘추를 돌려보냈다. 이 일로 인하여 김춘추는 고구려의 힘을 빌어 백제를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으며, 당항성 전투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 이후 선덕왕은 이듬해 9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어 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⁸⁷⁾ 아래 <사료-6>은 신라에서 당으로 파견된 사신이 당 태종에게 군사를 요청하고, 당에서는 고구려로 사신을 보낸 일을 기록한 내용이다.

- <사료-6> 정관 17년(643)에 사신을 보내어, “고려와 백제가 여러 차례 번갈아 공습을 하여 수십 성을 잃었는데, 두 나라 군대가 연합하여 신의 사직을 없애려 합니다. 삼가 배신을 보내어 대국에 보고를 하오니, 약간의 군사로나마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상언하였다.

86)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條.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元年條.

87)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2年條.

태종은 상리현장을 보내어 고려에, “신라는 나의 명령에 따르는 나라로서 조헌을 빼놓지 않았고, 그대 나라와 백제는 함께 마땅히 무기를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오. 만약 다시 공격을 한다면 내년에 군사를 내어 그대 나라를 칠 것이오.”라는 새서를 내렸다. 태종은 친히 고려를 치려고 신라에 조서를 내려, 군사와 말을 모집하여 대군에 응접하라고 하였다. 신라는 대신을 파견하여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고려의 남계로 들어가 수구성을 쳐서 항복받았다.⁸⁸⁾

위의 기사는 642년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백제가 40여 성을 빼앗은 것과 당항성을 두 나라가 협공한 것을 가르키는데, 신라는 약간의 군사만 내어준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구원하였다.⁸⁹⁾ 이에 당 태종은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 그리고 신라는 군사 5만명을 동원하여 고구려의 수구성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 전투는 김춘추가 고구려와의 협상결렬과 자신을 감금한 일에 따른 보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라와 고구려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백제와 고구려는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이유는 645년 급기야 당이 고구려를 침략해 왔기 때문이며, 648년까지 3차에 걸쳐大戰이 벌어져 신라를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제는 645년부터 649년까지 신라의 여러 성을 거의 매년 공격하였다. 그리고 655년

88) 『舊唐書』東夷列傳 新羅條 “貞觀十七年 遣使上言「高麗·百濟 累相攻襲 亡失數十城 兩國連兵 意在滅我社稷 謹遣陪臣 歸命大國 乞偏師救助」/太宗遣相里玄奘齎璽書賜高麗曰「新羅委命國家 不闕朝獻 爾與百濟 宜即戢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擊爾國矣」/太宗將親伐高麗 詔新羅募集士馬 應接大軍 新羅遣大臣領兵五萬人 入高麗南界 攻水口城 降之”.

이 기록은 『三國史記』에 선덕왕 12년(643)과 13년(644)의 일로 되어 있다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3年條).

89) 신라는 선덕왕 12년(643) 9월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예부의 관직을 지낸 善品公이 왕명을 받들어 당에 사신으로 갔다가 병을 얻어 돌아와서 죽었다고 하여 이때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을 짐작케 한다(김대문 저, 이종욱 역, 『대역 화랑세기』, 소나무, 2005, 290~291쪽).

백제와 고구려, 말갈이 신라의 33개 성을 함락한 일로 연결되었다. 이렇듯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관계는 642년 당항성 전투부터 계기가 되어 655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당항성이 있는 남양만 일대는 처음 백제가 점령한 당시부터 주요 항구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백곡리 고분군으로 석곽묘에서는 철제 대도와 단갑, 재갈 등 무장의 갖춤새 등이 출토되어 이 지역을 수비 하던 백제 무장의 고분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덕적군도에서도 백제 유물들이 확인되기도 했다.⁹⁰⁾ 이로 보아 백제인들도 당항진을 주요 항구로 활용했음을 짐작해 주고 있다.⁹¹⁾ 또한 신라는 당항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했는데, 당성의 확장 축조가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며, 또한 소정방이 덕적도 국사봉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신라인들도 이미 제사의식을 지냈던 장소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겠다.⁹²⁾ 국사봉은 덕적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당시에 신성한 제사장소였으며, 소정방이 이끈 당군도 백제와의 大戰을 앞두고 제사의식을 통해 승전과 무사귀환을 기원했을 것이다. 특히 신라인들이 덕적도를 대중국 향로의 거점으로 활용했을 곳이었단만큼 원거리 항해의 안전을 염원했던 祭場을 마련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항성 일대에는 많은 수의 성곽과 고분군, 절터 등이 분포해 있다는 점과 덕적도에도 수군기지를 건설하여 沿近海를 방어하는데 활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여제 수군은 이러한 덕적도를 1차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90) 서울大學校博物館, 『德積群島의 考古學的 調查研究』, 1999, 58쪽.

91) 당성 주변에 위치한 백제 성으로는 우정면에 있는 한각리성(둘레 551m, 편축식 토축성)과 운평리성(둘레 1,185m, 편축식 토축성)이 있으나 아직 정밀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京畿道博物館, 앞의 책, 1999).

92) 소야도에 당군의 진지였다고 하는 ‘담안’이라는 유적이 남아 있어 100여 평의 넓이의 땅 주위에 초석을 둘러쌓은 자취가 남아 있다고 한다(金光鉉, 앞의 책, 1985, 74쪽).

5. 맺음말

신라 입장에서의 당항성은 진흥왕대 처음 서해안 뱃길을 열었던 대중국 외교의 거점성으로 삼국통일을 이루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로서는 이 당항성을 반드시 봉쇄하거나 재탈환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신라는 국운을 걸 정도로 결사적으로 사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백제 입장에서는 당항성을 봉쇄하여 신라가 당과 교섭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지만, 당항성을 둘러싼 신라의 방어체계가 녹록치 않아 독자적으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했던 것이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당항성 전투에 대하여 전후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제 의자왕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된 전투였다. 즉 642년 7월에 신라의 40여 성을 대거 함락하고, 8월에 당항성과 대야성을 동시에 공격하는 파상공세를 펼쳤다.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주 목표로 삼아 윤충 장군을 비롯한 1만명의 대군을 보내어 공격케 한다. 그 사이 백제는 수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수군과 함께 당항성을 공격함으로써 신라의 도성으로 통하는 거점성과 대당 외교의 거점항구를 동시에 타격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영류왕 재위기간동안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에게 낭비성을 함락당하는가 하면, 임진강 유역의 칠중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북상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패전하고 만다. 이 시기 백제로부터 당항성 공격에 대한 제의를 받고, 이를 승인하게 됨으로써 여제동맹이 성사되었다. 결국 여제는 당항성과 덕적도를 기습하였지만, 남양만 일대의 많은 섬과 방어에 유리한 지형,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제한적 공격 등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신라는 당항성 전투 직후 당으로 사신을 보내는 한편, 김춘추가 그해 겨울에 고구

려를 방문하여 백제를 치고자 청병을 요청했다. 이렇게 김춘추가 직접 방문했던 것은 표면상으로 볼 때, 지난날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태왕대에 대규모의 지원군을 얻어 倭 등을 물리친 일과 553년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했을 때에도 고구려와의 밀약을 맺었던 경험 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제에 대한 대야성 전투의 보복을 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당항성을 고구려, 백제가 연합하여 공격해 온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고구려까지 방문한 숨겨진 목적은 고구려가 정말 백제와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맺은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7월부터 8월 사이에 백제의 파상적인 공세가 있었고, 9월에 이미 당에 구원을 요청하기 위한 사신을 보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를 방문한 것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만약, 고구려가 신라에게 지원군을 내어 주었거나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면 신라로서는 백제만을 상대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당항성에 대한 연합공격은 일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청병을 거절하거나 자신을 인질로 잡는다면 결국 두 나라를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춘추는 당에 사신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고, 한편으론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보다 신중히 고려했던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로 가기 전에 선덕왕과 김유신에게 사전에 방책을 알려두고 방문했던 것이며, 막상 보장왕이 억류하자 先道解의 도움과 김유신이 군대를 동원하여 출병함으로써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다.⁹³⁾ 이 상황에서 보장왕은 죽령 이북의 땅을 운운했고, 김춘추는 자신이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한다. 이 답변은 곧 고구려의

93) 『三國史記』卷41, 列傳1 金庾信 上傳條.

지원에 따른 보상책을 준비하지 않고 방문한 것으로 만약, 그러한 준비를 했다면 김춘추를 억류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김춘추가 당항성 전투 이후 고구려를 방문한 것은 당에 이미 구원을 요청한 상태에서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던 목적도 있었으며, 이는 곧 신라가 대당 외교에 있어 명분을 쌓아 가는 포석이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당에서도 643년 고구려로 相里玄獎을 보내어 신라와의 전쟁을 그만두도록 권고한 것은 642년 9월에 신라 사신이 당에 와서 여제의 동맹소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 당은 두 나라의 동맹을 확인하였고,⁹⁴⁾ 신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고구려 정책을 펴나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당항성 전투는 백제가 신라의 허를 찌른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거기에 고구려와의 동맹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삼국간의 균형이 깨지고 당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전쟁에 휩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신라 입장에선 백제와의 국경지대에 분포한 40여 성이 함락당한 상황에서 당항성까지 기습받자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백제가 이렇게 치밀한 전술을 구사한 것은 무왕대부터 신라와 접한 요충지를 두루 공략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당항성을 목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대야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왕도를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과

94) 『文館詞林』의 내용 중에 당은 645년 2월경 의자왕이 보낸 扶餘康信에게 교서를 내렸다. 거기에는 당태종이 백제와 고구려가 協契를 맺었다고 의심했는데, 의자왕이 보낸 표를 보고 강신에게 물어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의자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관군과 함께 凶惡을 정벌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조서를 통하여 당이 백제에 대해 의도하였던 것은 당을 위해 신라가 과병하고 있는 동안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朱甫暉, 1992,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 『慶北史學』 15, 慶北史學會, 164~166쪽).

동시에 당으로 사신을 보내지 못하도록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백제는 단독으로 당항성을 공격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에 청병을 하게 되고, 고구려는 낭비성과 칠중성 전투의 보복 차원에서 전투에 응하게 된다. 고구려와 백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당항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군을 동원한 전술을 펼치게 되지만, 신라 수군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이 전투를 계기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한 것을 탐지하였고, 이를 당에 알려 청병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당항성 전투는 이제까지 대야성 전투에 가려져 백제와 고구려, 신라사이에 벌어진 일회성 局地戰으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지만, 백제의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진 전투였다. 비록 이 전투에서 백제와 고구려군이 당항성을 봉쇄하지 못하였지만, 신라와 당 사이의 외교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시도했던 목적이 뚜렷한 전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원고투고일: 2015.7.1,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당항성, 당성, 백제, 고구려, 신라, 의자왕, 김춘추

<ABSTRACT>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ree kingdoms and the significance of Danghang-fortress battle in the early 7th C

Hwangbo Kyung

As Danghang-fortress was the key position of diplomacy to China after the occupation of Han-river basin during the period of King Jinheung of Shilla, it was the place which must defend staking the national destiny.

Whereas, Backje and Gogurye had to block up the point because they bore the burden of Su or Dang's Dynasty interference when they attacked Shilla. Finally in 642, Backje's King Uija captured approximately the 40 castles and Daeya-fortress. At the same time it attacked the Danghang-fortress with Gogurye. The reason why Danghang-fortress became a target was to obtain the bridehead for attacking the royal road through attacking Daeya-fortress. it also meant that they couldn't send an envoy to Dang.

But Backje hadn't been enough strong if for attacking Danghang-fortress lonely. So it asked Gogurye to send the troops. As for the request of military support from Backje, Gogurye accepted that because it retaliated against Shilla for the defeat of Nangby-fortress and Chiljung-fortress battle in the past. In order to attack Danghang-fortress quickly Gogurye and Backje might use the naval forces than the army. There supposed to be intensive battle between Deuckjeck-island and Danghang-fortress.

As the result of the battle, Backje and Gogurye failed to gain secure Danghang-fortress because they could not overcom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se and fall of the tide and the geographical conditions. Through this battle, Shilla came to know(identified) the reality of Gogurye and Backje's alliance and Shilla could inform the fact to Dan and it developed their favorable relations with Dang. So they requested Dang to send out the military forces.

Even though Danghang-fortress battle had been considered a kind of one-time regional war thus far, in fact, it occurred under Baekje's deliberate plan. Although this battle couldn't be blocked Danghang-fortress by Baekje and Gogurye, this it is significant that the aim of conducting of the battle was to break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hilla and Dang. Also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Baekje used different tactics when he attacked Shilla compared to the battle in the past.

Key Words : Danghang-fortress, Dang-fortress, Baekje, Gogurye, Shilla,
King Uija, Kim chun chu

